

Daily Auto Check

2020. 10.22(Thu)



자동차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
02.6454-4866

joonsung.kim@meritz.co.kr

RA 이다빈

02.6454-488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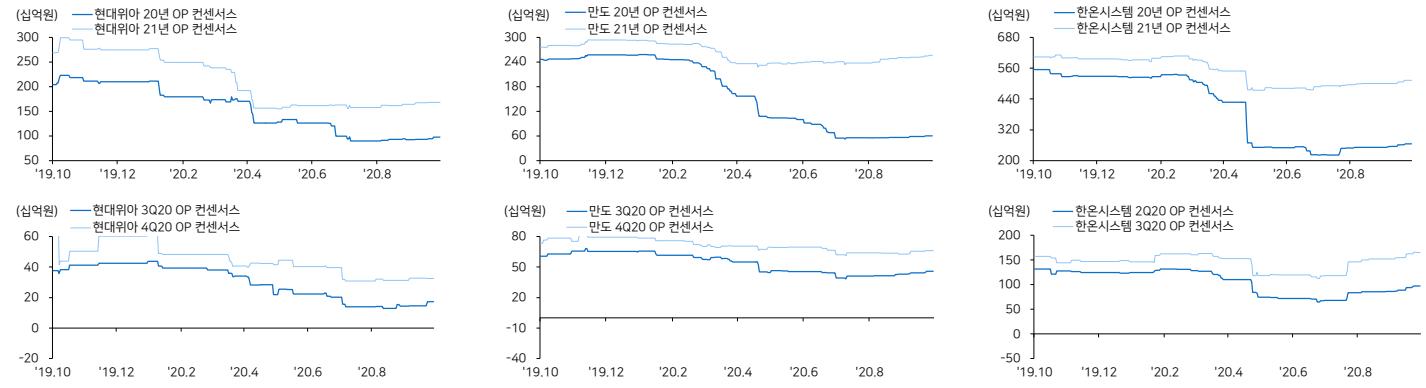
dabin.lee@meritz.co.kr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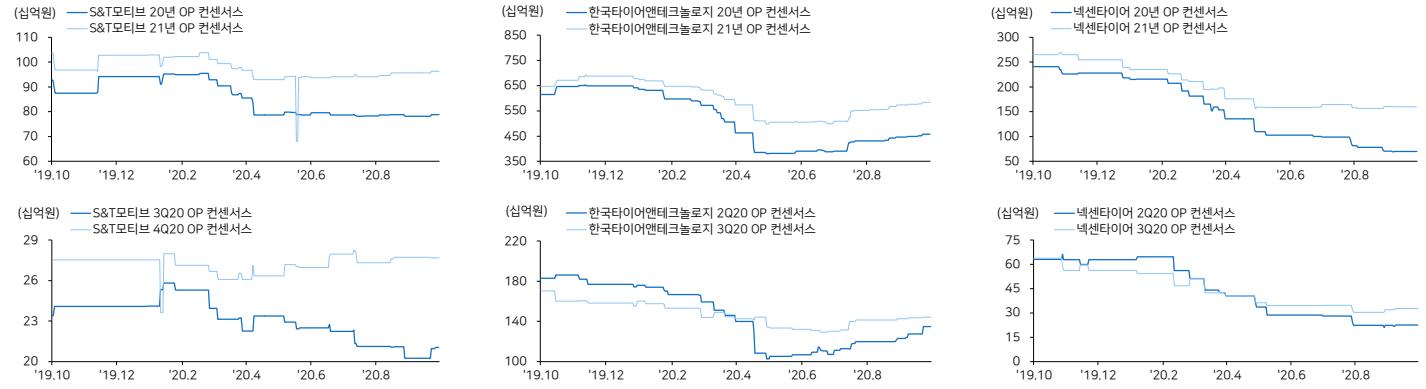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Tesla releases Q3 2020 results: destroys both revenue and profit expectations (Electrek)

Wall Street was expecting revenue of about \$8.2 billion for the quarter and a gain of \$0.55 per share. Tesla managed to destroy expectations with \$8.7 billion in revenue and a gain of \$0.76 per share.
<https://bit.ly/3kmurOR>

현대·기아차, '고질적 품질개선' 문제 개선 위해 조직 정비한다 (전자신문)

현대·기아차가 3조4천억원의 품질 비용을 충당금으로 마련하기로 한 데 이어 품질 문제 개선을 위한 조직을 강화. 유관 부서간에 품질 관련 정보와 각종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, 함께 역할을 집중해 해결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함.
<https://bit.ly/3jdIwOU>

현대모비스, 친환경 부품 제조에서 환경영경 기업으로 변신...그 배경은? (데일리리커)

현대모비스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친환경차 핵심 부품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음. 작년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사업 분야에서의 매출은 2조 8000억원에 달함. 이는 전체 핵심 부품 매출 가운데 전동화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1/4이 넘는 수준.
<https://bit.ly/35kVtA>

GM, 슈퍼트럭 전기차 'GMC 헤더 EV' 공개 (파이낸셜뉴스)

GM은 글로벌 온라인 공개 행사를 통해 브랜드 최초의 슈퍼트럭으로 일컫는 '헤더 EV'를 공개. 헤더 EV는 GM의 산하 브랜드 중 SUV, 퍼포먼스를 전문으로 하는 GMC 제품 라인업 가운데 최초로 선보이는 순수전기차.
<https://bit.ly/3dmF1Mx>

현대차, 계열사 사업재편 시동 걸었다 (디지털타임스)

현대차그룹이 미래차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계열사의 사업 개편을 단행. 현대차는 파워트레인 전동화제어 사업을 현대캐피토에 일월화시키고 동시에 현대오트론이 주도하는 자율주행 등 차량용 반도체 역할을 높인다는 전략.
<https://bit.ly/3dQFUrn>

현대차, 차세대 전기차 실명회 돌연 연기 이유는? (이데일리)

현대차가 차세대 EV 전용 플랫폼(E-GMP) 기술 설명회 개최를 연기. 정의선 회장의 취임 전후로 '품질경영'에 리스크가 큰 분위기에서 미래차 전략을 발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됨.
<https://bit.ly/34hdCPF>

전기차 격차 앞둔 글로벌 차업체들...몸집 줄이면서 투자늘린다 (조선비즈)

글로벌 원자차 업계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음.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인데다 미국 2020년 미국 내 차기 판 차량 판매 금지 계획을 구체화한 상태이기 때문.
<https://bit.ly/37yuua>

중국 자동차 보유량 3억6500만대...베이징장 600만대 (뉴시스)

중국 전체 자동차 보유 대수는 3억6500만대에 달함. 이중 2316만대가 코로나19으로 경제적 충격이 가해진 지난 1~9월 사이에 등록했다고 밝힘. 이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한 것을 방증.
<https://bit.ly/3odC0cv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